



조경수목산책 34

- 주목(Ⅱ) -



임 경 빈
농학박사

6. 우리나라의 주목

(1) 소백산의 주목군락

소백산의 주목군락은 세계적으로 학술가치가 인정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 군락의 소재지는 충북 단양군 각각면 어

의곡리로 되어있고 천연기념물 제244호로 지정되어 있다. 군락의 면적이 148,760㎡의 광대한 규모에 이르고 약 1000그루의 주목이 모여서 나는데 수령은 200~500년생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 어떻게 해서 주목이 순림모양으로 넓은 숲을 형성했는지 일종의 신비라고 할 수 있다. 소백산 능선 서쪽 완만한 경사면에 모여있고 분포 중앙 지점에 샘물이 솟아나서 계류의 시원지가 되고 있다. 이것으로 본다는 이곳은 토양수분이 많은 편으로 다습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바람을 많이 맞은 곳으로 까닭에 나무들의 키는 그다지 높지는 못하고 7m 쯤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인지 결가지가 많이 나있는 편이다.

1992년 8월 상순 소백산 식생조사단이 이곳 주목 숲을 답사할 때 필자도 그 일원으로 참가하여 그곳 주목군락을 관찰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 주목 숲을 안내하는 간판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기록을 읽을 수 있었다.「…… 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국망봉과 연화봉에 이르는 능선을 따라 3만여 그루



▲소백산의 주목. 1983. 6. 25.

가 자라고 있었다 한다. 지금은 이곳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원래 주목은 교목으로서 곧 바르게 자라는 나무이나 이곳의 주목은 강한 바람으로 대부분 줄기가 휘어져 그 모습이 기묘한 것이 특징이다.]

이때 그 원인은 바람뿐만 아니고 겨울의 눈을 생각할 수 있다. 두텁게 쌓이는 눈으로 가지는 아래로 휘어지고 봄 늦게 까지 계속되어 줄기는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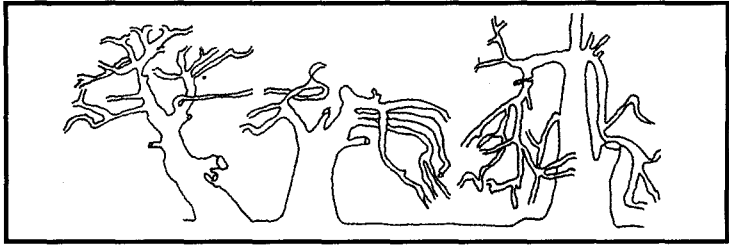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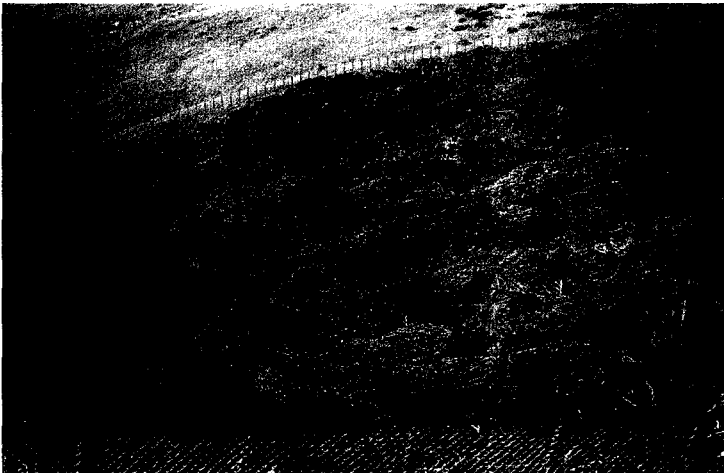


그림4. 소백산 주목의 기이한 수형

모양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것을 반굴수형(盤屈樹型, gnarled tree form)이라 한다. 소백산 주목은 예외없이 모두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주목은 원래 주축성장(主軸成長)을 하는 것

인데 계속되는 설압(雪壓)에 저항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보기는 소백산의 다른 수종에 있어서도 관찰할 수 있다. 가령 물푸레나무가 그것이다. 물푸레나무가지는 유연성



1. 소백산 주목 군락
2. 주목의 기형 소백산
3. 소백산의 주목 1992. 8. 8
4. 천년을 넘긴 생명. 소백산 주목

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설압으로 가지가 꺾여지지 못하고 쳐져있다. 원상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주목 잎은 겨울에도 뾰뾰하게 달려 있어 더욱 많은 눈을 없게 되고 그 가지가 또한 탄력적이어서 그와 같이되고 만다. 물푸레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반굴수형이 심하지 않으나 주목은 뾰뾰한엽량 때문에 그 경향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일본에 있어서 나한백은 눈 때문에 유사한 현

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는 이곳 수형을 스케치해 보았는데 그것을 그림 4에 보인다.

소백산의 주목군락은 과거 도굴꾼들에 의해서 많은 손상을 받았고 그래서 그 수가 줄어들었다. 주목은 돈이 된다해서 몹쓸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 어지간한 크기의 나무는 캐갔다.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이 군락은 잘 보호되어야 한다. 주변에

철책을 쳐 놓고는 있지만 더 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태백산의 주목군락

1997년 10월 낙엽송의 황금빛 단풍이 유난히도 눈부시게 반사하는 때 신비의 산 태백산을 오른다. 무언가 전설과 신화에 가득 찬 듯한 예감이 성숙해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올린다. 가다가 신갈나무의 늙은 가지

가 제멋대로 예술성을 가지고 굴곡과 공간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신갈나무나 주목이나 서로 한랭한 기온을 선호하는 까닭에 주목 출현을 미리 알려주는 전조수종(前兆樹種)임에 틀림없다. 등산로를 심술궂게 막아주는 신갈나무 곁가지의 빗장을 저항없이 허리를 낮추어 지나간다. 가다보면 비탈면에 산죽이 융단처럼 깔려있다. 산죽은 뻑뻑한 지하경의 발



1. 태백산과 천제단. 1997. 10. 22.
 2. 천제단의 한배검. 태백산. 1997. 10. 22.
 3. 주목과 함께 자라는 분비나무 태백산. 1997. 10. 22.
 4. 5. 태백산의 주목. 1997. 10. 22.



달로서 영토를 강점(強占)하는 힘이 있다.

가다가 짝나무의 어린 나무가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늘을 보고자 애쓰고 있다. 꽤 키 큰 분비나무도 여기저기 보인다. 이들은 모두 주목의 동반종(同伴種)이다. 우리를 비로소 놀라게 하는 주목의 노거목이 길 한가운데에 서서 수문장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마음속으로 태백산 탐방의 뜻을 전

로 기운 것이 흔하다.

아마 천년의 수명을 오가는 노령목들로서 무언가 일반성(一般性)을 초탈(超脫)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백산 정상에는 돌로 둥글게 아취있게 쌓아올린 제단이 여기저기 3개나 있다. 그 중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서 남아있다. 돌계단을 올라 제단으로 나아가면 천제단(天祭壇)이라고 새긴 것을 볼 수 있고 평

평한 제단의 중앙에 돌비가 서 있는데 한배검이라 음각하고 붉게 칠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석비의 주변 평평한 돌상 위에는 갖가지 제물이 놓여 있었고 신에 제사지내는 여인 몇 사람이 치성을 들이고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를 오고가는 신은 하늘에서 이곳 태백산으로 하강할 때 먼저 일단 주목의 노거목에 내려앉아 휴식을 취하고 모양새를 다듬고



하고 통과한다. 그때부터 여기 저기 흩어져 자라는 주목의 노거목이 보인다. 늙은 나무는 그 끝쪽이 잔혹한 환경과 수없이 경험한 벼락으로서 죽음을 당하고 용케도 살아남은 줄기 꺾질을 통해서 측면잔명(側面殘命)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나무에 따라서는 수형이 한쪽으

위: 덕유산 주목
집단과 개발사업
1995. 2. 23.
아래: 주목의 수
난. 덕유산 1995.
2. 23.





▲주목의 신구세대 태백산. 1997. 10. 22

때를 맞추어 제천당으로 옮겨 갔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태백산 꼭대기에 서 있는 주목의 노거목들은 신들이 거쳐하는 거룩한 공간이었을 것으로 본다.

태백산에 자라고 있는 주목들은 노쇠현상을 보이는 것이 많았다. 줄기의 중심부가 부후하고 수피의 부분 부분이 죽어 있고 주축이 고사되는 등 늙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아래에 주목의 유생(幼生)도 있었겠으나 많이 도둑을 맞아 집단으로서의 개체간 유대가 약해지고 있었다. 인공적으로 사이사이에 묘목을 끼워심고 있었다.

태백산은 신의 승양이라는 분위기가 주목나무의 줄기에 칭칭 감겨있는 듯했다. 우리는 해가는 줄 모르고 시선은 끝까지 투명한 공기를 뚫고 멀리 달리고 있었다. 태백산의 주목도 높은 곳에 서있는지라 눈의 힘에 못 이겨 수형이 뺄어떨어진 것이 있는 소백산 주목과 통하는 점이 있었다. 그런데 태백산의 주목은 소백산의 그것보다는 주간성이 강하고 수고도 더 높아 나무로서의 위엄같은 것을 더 느낄 수 있었다.

(3) 덕유산의 주목

덕유산 꼭대기 부분에는 주

목이 군락을 만들고 있다.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것이다. 지난 날 기후가 더 한랭하였을 때는 더 아래까지 분포해 있었겠으나 기후가 따뜻해지자 주목들은 추운 곳을 찾아서 산 위로 향해서 올라갔다. 덕유산 꼭대기가 살기 좋아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물의 집단은 생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식생에는 사람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약하다보니 조금만 손을 대어도 허물어질 판이다.

나는 1995년 2월 23일 덕유산

의 주목에 이상이 있단 말이 있어서 일단 무주로 갔다. 그곳에서 차로 새로 스키장을 개설하고 있는 덕유산으로 향했다. 인간의 힘은 대단해서 상전창해(桑田滄海)도 시간문제라고 생각되었다. 덕유산은 그 모양을 바꾸고 있었다. 산꼭대기의 주목의 노거목은 이리저리로 옮겨 심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잘 살아 붙어 있는지가 궁금하다. 덕유산의 주목은 뚜렷한 주간성을 가지고 있었다.

구상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었는데 비슷한 운명을 담고 서로 비슷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간은 여기까지 자연을 파헤쳐야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는건가 하고 쓸쓸한 상념에 잠기면서 덕유산 주목집단을 내다보았다.

참다가참다가 자연은 홀연 그 무서움으로서 인간에 대들 것으로 보았다. 지금 지구를 감싼 대기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데 그때는 이곳 주목과 구상나무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제는 더 올라갈 곳이 없다.

7. 송백(松柏)과 주목

주목은 소나무(松)보다 또 측백나무(柏)보다 더 추위에 견디고 또 더 추운 곳에 자라는 나무인데도 논어에「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也」 즉「추운 때를 당한 뒤라야 소나무와 측백

나무의 변하지 않는 푸름을 알 수 있다.」라는 대목이 있어서 주목은 뒤로 쳐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가하면 시경 소아(小雅)에도「如松柏之茂」란 대목이 있어 송백은 함께 대우를 받고 있고 본초강목에도「송백은 모든 나무의 어른이다(松柏爲百木之長)」이라 있어서 송백은 하나로 되어서 귀한 처신을 하고 있다.

송(松)은 소나무류로 보면 되나 백(柏)은 측백나무, 편백나무, 잣나무, 전나무, 향나무, 떡갈나무류 등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특히 나무라고 정해진 것이 못된다. 다만 상록수종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래서 송백이라 하면 상록성의 침엽수종을 총칭하는 것쯤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과학적 근거에 초점을 두지 않는 시문장에 있어서는 부드럽게 해석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상록성활엽수(柏에 있어서)로 보지 않는 것은 그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엄동설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주목은 눈서리 무섭지 않은 데도「송백지자 경상유무(松柏

之姿 經霜猶茂)」라는데 끼어 들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다. 그래서 송백은 주목, 향나무, 가문비나무류, 전나무류, 측백나무, 편백나무류 등등에 함께 하는 상록침엽수종으로 묶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묘지주변에 소나무와 측백나무를 심는 묘속(墓俗)이 있어서 송백이 묶여지는



▲이식된 주목. 덕유산 1995. 2. 28

일도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는 주목의 상징은 죽음, 슬픔, 저세상 등이여서 묘지주변에 심었다고 한다. 무언가 통하는 점이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에 주목이 있다는 것은 자량이 아닐 수 없다. **조경수**